

동부권 지자체 장마철 집중호우 침수 예방 선제대응 총력

영산강유역환경청·산업단지공단 등과 대책회의·합동 현장 점검
우수관로·상습 침수 구역 등 시설물 침전물 청소 하천 준설·정비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와 정부 기관이 장마철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여수시·구례·곡성·고흥·보성군과 환경부 영산강 유역환경청·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근 도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수관로·맨홀·빗물받이 상태 등 현장 점검과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평택시의 ‘수해 대비 현장점검 회의’ 참석과 한강홍수통제소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 체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홍수 대응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며, 사후 복구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면서 “각 기관은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동부권 각 지자체별 기관과의 호우 대비 내용이다.
◇여수시-한국산업단지공단=여수시는 지난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여수산단 우수관로 합동 점검에 나섰다. 최정기 여수시부시장과 공단 관계자 10여명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 상습 침수 구역 내

시설물 등을 살폈다. 토사와 낙엽 등 이물질이 쌓여 있는 빗물받이 등은 신속하게 정비해 원활한 배수 환경을 유지했다. 아울러 시는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수방자재 사전 준비, 재해 취약지 예방 등 예방활동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구례군-영산강유역환경청=지난 16일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구례군과 함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구례읍 봉동리 일원(5일시장 앞~공영버스터미널)에서 하수시설 정비활동을 시행했다. 양 기관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정비활동은 국지성 호우와 돌발성 홍수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펼쳐졌다. 노후 우수관로 점검과 침전물 청소 등을 시행했으며, 침수 시 맨홀 부식 등으로 보행자가 빠지는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도 살피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대비했다.
◇구례군=군은 이길용 부군수 주재로 16개 관계 부서와 8개 읍·면이 화상을 통해 ‘장마철 및 집중호우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교통과의 기상 전망 및 주요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부서별 추진상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해 재난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부서별 소관 시설물 및 공사 중인 사업장 대책’, ‘우수 배수관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이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은 구례읍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수도 시설 정비 모습.

로 역류 대비 사전 정비’, ‘기상 특보 발효 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비상근무 체계 즉각 가동’ 등을 살폈다.
◇고흥군=군은 이날 말까지 주요 하천과 우수관로를 대상으로 준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4월부

터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농경지 배수로, 하천 등에 대해 예비 점검을 실시하고, 시급한정비가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준설과 정비를 펼치고 있다. 특히 고흥천과 녹동천 등 도심을 통하는 하천과 읍·면 소재지의 배수관로를 우선 정비했다.

또 도로 상습 침수 구간의 측구와 간척지 내 배수로 준설작업 도 함께 실시해 침수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곡성군=군은 지난 20일 극한호우에 대비한 주관부서와 협업부서의 임무 점검 회의를 개최했으며, 조상태 곡성군수는 직접 현장에 나섰다. 조 군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배수펌프장 등을 집중적으로 답사했으며, 주민 대피체계와 임도 배수시설, 노후된 배수펌프장 등을 점검했다. 재난 대비 태세를 관련 부서장과 함께 직접 확인하면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보성군=군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취약시설 사전점검, 구호물자 확보, 주민 대피 훈련 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개소, 저수지 102개소, 소하천 391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01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대형 건설현장 53개소에 대해서는 2인 1조 담당제를 운영해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특히 빗물받이와 우수맨홀에 대한 사전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배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밖에도 순천·광양시도 부서회의 및 읍면동장회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호우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수=김창환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주각중 기자·구례=이진택 기자·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 보성=김용백 기자 kyb@

여수시 내일까지 ‘남해안권 해양·관광 MICE 도시 포럼’

일본·필리핀 등 4개국서 참가
해양관광도시 육성 전략 등 논의

여수시가 전남대·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와 오늘부터 이틀간 ‘2025 남해안권 해양·관광 마이스(MICE) 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26여수세계계습박람회 성공개최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기원하며 지속 가능한 섬과 해양, 건강한 해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을

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국내 외 해양환경 전문가, 관련 단체, 전공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 해양을 지키는 로컬 이니셔티브(지역 주도권)’를 주제로 민관산학 협력 기반의 국제 네트워크(연계망) 확대와 지역 특화 융복합 국제회의의 모델로서의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다룰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26일 JCS호텔에서 진행되는 본 포럼에서는 기후 위기와 해양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초 발제를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도시를 위한 블루이노베이션(해양 혁신) 전략 ▲기후

위기와 슬로피시(Slow Fish) ▲국내외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부문별로 전문가, 마이스(MICE) 연구자 등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대만 등 4개국 해외 연사도 참여해 국제 담론을 이끈다. 27일에는 만성리 검은모래해변에서 ‘반려해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변 정화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참여와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다. 2025 남해안권 해양·관광 마이스(MICE) 도시 포럼은 여수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 ‘여수이야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여수=김창환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경찰-교육지원청 ‘안전한 학교문화’ 협약

순천경찰은 25일 순천교육지원청과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학(警·學)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순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순천경찰서와 순천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생활지도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및 각종 비행행동으로부터 학생을 지키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허동균 순천교육장은 “순천경찰과 더불어 학생

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학교전담경찰관(SPO) 수시 학교 방문 및 학생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강화 등 다양한 참여 체형 프로그램 발굴 학교 요청시 교내 안전활동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구례군 문화·역사 유산 기록·홍보 업무협약

연구단체 남도풍경연구소와
구례군이 지난 24일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비영리 연구단체 ‘남도풍경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구례군이 보유한 자연과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해 관광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자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지리산과 섬진강, 화엄사, 운조루, 사성암 등 구례의 대표 관광지와 함께, 산수유꽃 축제, 300리 벚꽃축제, 화엄매 사진 콘테스트, 지리산남악제, 피아골 단풍축제 등 매년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생생하고 품격 있게 기록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협약은 구례군의 아름다움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생활인구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도풍경연구소는 2014년 설립된 비영리 연구단체로, 광주·전남·전북의 자연과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해 오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452억 투입 고령자복지 공공임대주택 150호 건립

국토부 공모사업...LH와 업무협약
고흥군이 지난 24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령자복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와 유병용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인 고령자복지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총사업비 452억원(국비 149억원, 가금 139억원, 군비 164억원)을 투입해 임대아파트 150호와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주상복합형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도



양을 융정리 1166-4번지 일원이다. 고흥군은 공모 선정 후 LH와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 5월 LH 내부 경영투자심사를 완료했고,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을 보이는 고흥군의 현실에 대응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형 주거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복지와 주거가 결합된 새로운 고령자 주거복지모형을 고흥군에 정착시키는 출발점”이라며 “LH와 긴밀히 협력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복지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곡성 죽곡면 복지기동대, 생활불편개선 활동

곡성군 죽곡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불편개선 활동을 펼쳤다.
〈사진〉
이번 개보수 작업은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수급자 등 총 5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됐으며, 복지기동대원·직원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들은 5일 동안 오래된 창호를 교체하고, 파손된 현관 나무데크를 철거 후 튼튼한 데크로 설치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예방 등 안전을 위해 계단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였으며, 이강봉 복지기



동대장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위기를 겪는 가구가 있으면 즉시 출동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